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25(금) ~ 2025.5.1(목)

제공일시 2025 5 9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25(금) ~ 2025.5.1(목)

제공일시 2025 5 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日, 2030년 말레이 앞바다에 CO2 포집·저장… 올 여름 각서 체결”

- 일본은 2030년부터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이산화탄소(CO2)를 포집·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CO2를 액체로 전환해 전용선으로 말레이시아 앞바다로 운반한 후 묻는 사업을 2030년부터 시작할 예정임. 이에 대한 각서를 올해 여름까지 말레이시아와 체결할 방침임
- 국제 조약에 따라 CO2의 국외 수송은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함. 일본으로선 처음으로 해외로 CO2를 보내는 사례가 됨
- 일본의 미쓰이(三井)물산, 간사이(關西)전력 등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뉴시스 2025.4.28\)](#)

2. “중국, 미국산 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 관세전쟁 타협점 찾나

-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옴. 양국이 보복을 거듭하며 벌여온 ‘관세전쟁’도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25일(현지시간) CNN은 중국 선전시 소재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반도체에 대해 보복 관세 125%를 조용히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의료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25%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관세 유예 품목에 미국산 에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중앙선데이 2025.4.28\)](#)

3. 캐나다, 기후·다양성 공시 의무화 보류… “시장 신뢰 훼손” 우려

- 캐나다증권관리위원회(CSA)가 기후 관련 의무 공시 도입과 다양성 공시 규칙 개정 작업을 전면 보류함
- CSA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글로벌 경제 불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경쟁력과 회복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CSA는 새로운 기후 공시 규정 마련과 이사회 및 경영진 성별 다양성 공시 개정 논의를 중단함
- 다만, 비벤처기업(규모 있는 상장사 등)에 한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 내 여성 대표성 공시 의무는 유지됨

[\(임팩트온 2025.4.28\)](#)

국내 정책

1.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해양보호 위해 3.7조원 투자”... OOC 개회

- 정부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개회식을 열고 해양 관련 76개 공약을 발표함
- 정부는 기후변화, 지속가능어업, 해양경제,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6가지 영역에 걸쳐 3조7593억원 규모, 76개 공약을 담은 ‘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함
- 정부는 올해 관탈도, 서해 중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정부는 또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물류 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 나갈 예정임

[\(뉴시스 2025.4.29\)](#)

2. 정부, 수소·CCU 글로벌 R&D 등 기후환경 신규과제에 233억원 투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함. 20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과제는 1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것임
-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 총 862억원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에는 233억7000만원이 투입돼 기후 관련 핵심 연구를 지원함
- 우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된 수소, 탄소포집·활용(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함
-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차세대 수전해(AEM/SOEC)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함
- CCU 탄소감축평가·인증체계 구축 과제를 통해 CCU 기술에 대한 탄소감축 평가 플랫폼도 구축됨

[\(IT비즈니스 2025.4.25\)](#)

3. 고위험 R&D에 최대 100억... ‘딥테크 챌린지’ 올해 싹 바뀐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2년 차를 맞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에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함
- 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던 추천제를 탈피해 기업과 투자사가 ‘프로젝트 팀’을 꾸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방성을 높임. 또, 뒤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출연 이후 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게 연계함
-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 ‘2025년 DCP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신규 과제를 발표함

[\(뉴스1 2025.4.24\)](#)

글로벌 기업

1. 美 청정철강 스타트업, '트럼프발 불확실성' 뚫고 투자 유치

- 미국 콜로라도 기반 청정철강 스타트업 '일렉트라(Electra)'가 1억2900만달러(약 18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며 총 투자액을 2억1400만달러(약 3080억원)로 끌어올림
-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일렉트라의 투자자에는 빌 게이츠가 이끄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reakthrough Energy Venture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캐프리콘 인베스트먼트 그룹(Capricorn Investment Group) 등이 이름을 올림
- 일렉트라는 20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콜로라도에 연간 500톤 규모의 시범 공장을 건설 중임

[\(임팩트온 2025.4.28\)](#)

2. MS·BMW도 투자한 '사이클릭', 북미 첫 희토류 재활용 기지 착공

- 캐나다 희토류 재활용 기업 사이클릭 머티리얼즈(Cyclic Materials)가 북미에서 첫 희토류 생산기지를 세움
- 사이클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 소재 첫 상업 시설에 2000만달러(약 285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발표함. 이 시설은 연간 2만5000톤 규모 폐부품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추출할 수 있는 재활용 기지로,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함

[\(더구루 2025.4.24\)](#)

3. SK온 파트너 IHI 테라썬, 커진 ESS 배터리 조달 리스크 경고

- 일본 IHI코퍼레이션의 북미 자회사 IHI 테라썬(IHI Terrasun, 이하 테라썬)은 관세 인상, 소재 규제, 조달 방식 변화 등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을 시사함
-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관세 부담과 중국산 소재 의존도 축소 압박이 겹치며 프로젝트 일정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디일렉 2025.4.24\)](#)

4. 일론 머스크의 xAI 홀딩스, 28조원 규모 투자유치 추진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 홀딩스가 200억달러(약 2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소식통은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조달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 금액이 200억달러(약 28조7000억원)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함

[\(전자신문 2025.4.27\)](#)

국내 기업

1. LS전선, 美최대 해저케이블 공장 착공… “공급망 재편 선제대응”

-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함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은 이번이 처음임
- LS전선은 약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최고 높이의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와 전용 항만시설을 갖춘 첨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LS전선의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제조공장을 착공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힘

[\(매일경제 2025.4.29\)](#)

2. 포스코, 칠레 국영 ENAMI 리튬 사업 최종 파트너 눈앞… 中 BYD와 경쟁

- 포스코홀딩스가 칠레광물공사(ENAMI, 에나미)에 구속력 있는 리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함
- 25일 칠레 경제지 디아리오 피난시어로(Diario Financiero) 등 외신에 따르면, 에나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포스코와 BYD, 에라메트, 리오틴토로부터 알토안디노스 염호(Salares Altoandinos)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받음. 내달 말 최종 파트너사를 선정할 예정임

[\(더구루 2025.4.25\)](#)

3. SK온, 美 '슬레이트'에 20GWh 규모 배터리 공급

- SK온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Slate)에 20기가와트시(GWh) 규모 배터리를 공급함. 준중형 전기차 3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분량임
- SK온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함. 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함

[\(현대경제신문 2025.4.25\)](#)

4. 한화그룹, REC실리콘 지분 100% 인수 추진… 1270억 투자

- 한화그룹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노르웨이 태양광·반도체 소재 생산업체인 REC실리콘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함.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실란 가스사업과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임
-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화·한화솔루션은 REC실리콘의 공개매수에 참여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예상 투자 금액은 약 1270억원임

[\(매일경제 2025.4.25\)](#)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4.25(금) ~ 2025.5.1(목)

제공일시 2025 5 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트럼프, 심해 광물 채굴 허용하는 행정명령 서명...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해역 심해 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미국 상무부와 내무부에는 60일 이내 심해광물 자원탐사, 감별, 채굴 및 가공 역량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음
- 이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해양대기청(NOAA)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수역에서도 채굴 허가 절차를 신속화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백악관은 “첨단기술과 군사안보에 필수적인 니켈, 구리, 망간 등 핵심 광물 확보를 강화하겠다”며 “미국이 심해 광물 탐사 및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음
- 행정명령에 따르면, 심해광물 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국 심해광물 매장량을 파악해 광물 개발 기회를 분석하고, 주요 채굴 후보지를 매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국제 해역에서 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 공유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행정명령은 미 정부가 중국의 광물 시장 통제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됨. 중국은 최근 핵심 광물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공급망 압박이 커졌음.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추진했음
-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음. 대부분의 해양 국가가 서명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사실상 무시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허가를 통해 심해 채굴을 진행하는 독자 노선을 택했다는 지적임
-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1980년 제정된 ‘심해저 경성광물자원법(Deep Seabed Hard Minerals Resource Act)’을 근거로 채굴 허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자국 기업에 미국 관할권을 넘어 대륙붕 외곽 지역에서의 채굴 허가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음
- 이번 행정명령 발표 이후 민간기업들은 심해 채굴을 위한 절차를 적극 추진 중임
- 미국 심해채굴기업 임파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는 이달 초 미국령 사모아 연안에 있는 니켈, 코발트 및 기타 중요 광물 매장지에 대한 채굴 임대 신청을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에 제출했음
- 캐나다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는 불과 한달 전 NOAA에 국제 해역 심해 채굴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을 밝혔음. 메탈스 컴퍼니는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태평양 광대한 심해 평원인 클래리언-클리퍼튼 존(Clarion-Clipperton Zone)에서 채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러시아 JSC 유즈모르게올로기야(JSC Yuzhmorgeologiya), 블루 미네랄스 자메이카(Blue Minerals

Jamaica), 중국 차이나 민메탈스(China Minmetals) 등도 심해 광업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태평양 해역에는 ‘다금속 단괴(polymetallic nodules)’로 불리는 광물 덩어리가 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관할 해역 내 약 10억 메트릭톤 이상의 다금속 단괴가 존재하며, 망간, 니켈, 구리 등 주요 광물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채굴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GDP가 3000억달러(약 426조원)로 증가하고,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음

-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rare earths)’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금속 단괴를 포함한 광범위한 핵심광물 확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없는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팩트우 2025.4.29\)](#)